

# 광주교육청, 돼지열병 확산

## 우려 통일열차 운행 연기

### 주요 방문지 경기 파주시, 위기경보 '심각'

광주시교육청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예정됐던 '2019 광주 평화통일열차, 북으로 수학여행, 평화로 통일여행'을 잠정 연기했다.

열차 도착지이자 주요 방문지인 경기 파주시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2019 광주평화통일열차는 관내

청소년 300여 명이 광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최북단역이자 DMZ내 위치한 도라산역까지 이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라산평화공원 등 파주시 인근 사적지 답사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참가자 피코퍼먼스로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

본부와 (사)광주전남겨레하나눈 참가 예정자였던 300여 명에게 문자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행사 연기 소식을 전달했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오경미 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통일열차 운행이 잠정 연기된 만큼 더욱 보완해서 뜻깊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사태가 조기 종결되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무안고 공자학당 '중국어 교실' 운영



무안고등학교 부설 공자학당에서는 9월부터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배우는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원한 무안고등학교 공자학당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

을 거쳐 중국어와 중국문화 교실을 열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모집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

공자학당은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교

육기관으로 전남 서부권에서는 무안고등학교가 첫 학교이다.

공자학당에 참여중인 학생과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교육 여건 하에서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중국어 교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한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파견된 원어인 조철균 선생님은 "한국과 중국은 밀접해있으며 문화, 경제교류도 많이 하고 있다. 이번 공자학당의 중국어 학습이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공자학당을 통해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자학당 '중국어 교실'은 처음 시작이어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조금 더 확장되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무안군에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 위원연수 개최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 교육행정의 새 지평을 연 제1기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가 전남교육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강

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는 18일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1층 중회의실에서 위원 30명과 교육청 간부

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위원연수를 진행했다.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전남도교육정책연구소 김태문 소장은 '교육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위원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한, 오는 26일로 예정된 임시회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김철오 도교육청 정책기획조정팀장이 '전남교육2020' 개요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학생행복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교육협력위원회 등 4개소위원회 별로 원탁토론을 갖고 위원의 자세를 가다듬고 전남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 송광중학교, 학생 휴식공간 '소나무' 개소

송광중학교가 학생을 위한 편안한 휴게공간을 19일 개소했다.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공간 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된 휴마루 사업을 통하여 송광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공간이 아닌 편안히 쉬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었다.

이 공간은 설계부터 활용방법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전 학교 공동체의 의견이 모여 구성되었으며 공간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소나무(소중함 나의 쉼터)로 정해졌다.

소나무는 카페처럼 그룹 활동

이나 대화가 가능한 공간, 영상을 보거나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 편히 누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도서관과 가까이 위치하여 신착도서, 동아리 지원도서 등 다양한 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작가와의 만남(23일) 등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광중학교 교내 세계시민교육 소모임(오월의 주먹밥)은 오월의 민주정신을 알리는 데 의기투합하여 광주시교육청의 교사

동아리 지원금을 활용하여 5·18 부스를 조성했다. 5·18 역사 왜곡 상황을 알리고 대처하기 위하여 5·18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만화와 그림책, 소설책 등을 구비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소모임 회장(교사 양형승)은 "1980년 5월 광주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이름으로 소나무 내 작은 공간을 구성하며 "이 공간을 통해 학생들이 80년 5월을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된 휴마루를 본 학생들은 "우리가 제시한 의견들이 실제로 구현되어 기쁘고 신기하다"고 말했다.

###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다름 넘어 어울림' 개최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18일에 광주교육연구정보원과 독서교육지원단이 주관하는 초등2차 독서체험프로그램 '다름을 넘어 어울림'을 용주초등학교에서 운영했다.

관내 초등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차이 나는 설문, 사이좋은 미션(책놀이, 토의, 발표), 작가와의 대화

등 즐겁고 유익한 독서체험활동이 이루어져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참가 학생들은 박현숙 작가의 동화 '601호 재판관' (2019, 아이앤북), '수상한...' (2014, 북멘토) 시리즈를 주제 도서로 삼아, 삼행시 짓기,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기 생각 발표, 다름과 어울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토의 활동 등 다채로운 독서체험을 함께 했다.

'다름을 넘어 어울림'에 초청된 박현숙 작가는 개개인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작품화하는 작가로, "차별과 다름을 이해하고 뛰어넘을 때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면서 나와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독서교육지원단의 최민(용주초) 교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모든 차이 안에는 너의 깊이가 있다. 처음에는 그 차이를 좁힐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이 안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다 보면, 지금보다 나은 우리가 되고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한 권의 책이, 책을 통한 즐겁고 유익한 체험활동이 그러한 역할을 넘겨주어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여수영재교육원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여수교육지원청은 17일 여수영재교육원 학생과 학부모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그동안 갖고 닦은 탐구력을 뽐내는 자리로서 수

학, 과학, 융합 분야의 대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한 팀별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내적동기를 높이고

핵심역량을 기르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였다.

발표주제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스마트팜, 적정기술, 플러코스터, 골드버그 장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참관자와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여수=송기홍 기자

